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기억과 반성, 회개의 첫 걸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려면 모든 것을 비우고 버려야(그물과 배를 버리고)하고, 과거의 삶과 단절(회개)할 때 비로소 그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12월26일 저녁8시 문화방송(MBC)은 뉴스에서 권력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던 때를 시청자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앵커는 독일 총리 메르켈이 아우슈비츠와 관련해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 사람들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지난 세월 뉴스가 저지른 횡포를 기억해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부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시작되고 그 기억은 영원히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겠다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난 연말 로마와 온 세계에(‘우르비 옛 오르비’ Urbi et Orbi) 성탄 메시지와 신년 카드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원폭피해로 죽어버린 동생을 업고 화장터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나가사키의 어린 소년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카드의 뒷면에는 ‘전쟁의 결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신년 메시지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 중동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쟁과 빈곤,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기억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황의 당부는 과거의 실패를 망각하고 여전히 탐욕의 화신처럼 살면서 저마다의 과오를 반성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따끔한 죽비가 되었습니다.

철면피한 국가 권력이 몇 년 동안 벌인 일들을 보면 거대한 삶의 급류에 휩쓸려 버린 듯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며 새 길을 선택해야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해 벽두입니다. 돌아보면 성직자요 수행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됩니다. 단박에 새 길로 돌아서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수행의 길 위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우고 버려서 회개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런 후회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느 연극인이 “시간이라는 상이 있다면 좋겠다.”면서 옹골차게 살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던진 탄식이 더욱 공감이 가는 요즘입니다.

태화동 본당 김영식 요셉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과 은총을 가득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그리스도를 온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입당성가 : 66번 '주의 백성 모여오라'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요나 예언서 3장 1절-5절.10절

안 내 : 요나가 니네베 성읍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묵 상 :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고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믿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제2독서 : 코린토 1서 7장 29절-31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묵 상 :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차서 가까이 오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물이 낮고 비워진 곳에 흘러들어 가듯이 하느님의 은총도 그러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낮추어지고 비워지도록 애를 쓰고 기도 해야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장 14절-20절

강 론 : ‘기억과 반성, 회개의 첫 걸음’(1-2쪽)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인생에서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일 때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봅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변의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 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6번 ‘이끌어주소서’



감 사 합 니 다.

공소사목지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과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공소사목지 성금 및 지출내역(2017. 1. 1 ~ 12. 31)

● 성금 총액 ₩13,160,000

● 지출 총액 ₩18,561,390

(지출내용 - 인쇄비: ₩8,778,000 편집비: ₩1,460,960 발송비: ₩8,322,430)



알림

■ 새 사제 첫 미사

- 1월 22일(월) 11:00 휴천동 성당
- 박철현 가브리엘
- 1월 23일(화) 11:00 하망동 성당
- 우석민 로만
- 1월 24일(수) 11:00 모전동 성당
-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
송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사목임원 및 제단체장 연수

- 일시 : 1월 27일(토) 15:00 - 28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40,000원
- 대상 : 평협 상임위원, 본당 사목임원, 교구 내 제단체 임원
- 준비물 : 미사도구, 세면도구, 필기구
- 신청 : 1월 23일(화)까지 사목국

■ 2018년 1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2월 3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월 30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2018년 교리교사학교

- 주제 : '말씀 속 미사 이야기'
- 일시 : 2월 3일(토) 13:30 - 4일(주일) 15:3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안동교구 초중고 주일학교 교사(신임 재임)
- 참가비 : 45,000원
- 준비물 : 성경, 미사준비, 세면도구, 필기구
- 신청 : 1월 26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여성연합회 총회 및 연수

- 일시 : 2월 7일(수) 10:00 - 16: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본당 여성연합회 회원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1월 30일(화)까지 사목국

■ 제8기 안동교구 신앙대학 신입생 모집

- 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 원서교부 : 본당신부님 혹은 교구 홈페이지
- 입학정원 : 50명
- 수업료 : 18만원(입학금 3만원 포함)
- 과정 : 구약성경 입문, 신약성경 입문,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사, 교회론, 윤리신학, 전례학, 교회법, 영성신학 (2년 과정)
- 교육장소 : 안동교구청 1층 강당
- 문의 및 접수 : 2월 8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2018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 대상 :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방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접수
- 등록금 : 1인 50,000원(1년)
- 등록기간 : 2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2018년 안동교구 “여학생 수도 성소자” 등록

- 대상 :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여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금 : 1인 50,000원
- 등록기간 : 2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안내[교구 구간]

- 교구기간 : 2018.1.27(토) ~ 1.30(화)
- 참가대상 : 탈핵을 희망하는 모든 분
- 일정
1.27(토) 옥성면(구미)-상주시청-남성동성당
1.28(일) 남성동성당-문경시청-모전동성당
1.29(월) 모전동성당-문경성당
1.30(화) 문경성당-문경새재-수안보성당
- 출발 오전 8시 30분, 도착은 오후 4~5시
개인여건에 따라 구간 선택해 참가
순례용품은 순례단에서 제공, 개인용 컵은 지참
- 문의 : 010-4219-6308/010-3827-2275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같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곳감 판매

- 건시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3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위기와 근심과 어려움에 빛 비추기

위기의 도전

235. 모든 부부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공통된 위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조절하고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하는 혼인 초기의 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정서적 도전을 야기하는 자녀 출산이라는 위기, 부모의 습관을 바꾸어 주는 자녀 양육이라는 위기, 부모에게 많은 힘을 필요로 하며 부모가 평정심을 잃고 서로 자주 대립하게 되는 자녀의 사춘기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빈 둥지’ 위기, 부부 각자의 나이든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많이 돌보아야 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데에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과 죄책감, 우울과 극단적 피로를 초래하여 부부의 결합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236.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정서적, 사회적, 영적 어려움과 같이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위기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방해할 수 있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필요한 예상치 못한 상황도 더해집니다. 진심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고자 결심하면서, 저마다 차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된 상황을 자신이 야기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질책하여 일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부 위기의

많은 경우는 적절한 도움과 은총의 화해시키는 힘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식으로 극복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근본적인 체험이 됩니다.” “화해라는 어려운 기술은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친지와 친구의 너그러운 협력, 때로는 심지어 외부의 도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37.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꿈꾸었던 것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혼인을 끝내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여기는 일이 더 흔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 혼인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단지 실망하였거나, 자신이 상대방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그가 곁에 없었거나, 자존심이 상하였거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상황이 있으며, 부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압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질투하게 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다른 이에게 끌리거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변하거나, 그 밖에 다른 많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랑을 위협하기 보다는 부부가 사랑을 다시 시작하도록 재촉하는 기회가 됩니다.

23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든지 관계없이 상대방을 삶의 동반자로 다시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성숙함을 지녀,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소중한 꿈들을 이루어 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스스로를 단순히 희생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정생활이 주는 작고 제한된 가능성을 잘 이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혼인 유대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모든 위기가 새로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과 같은 것으로 사랑을 강화하고 변화시키며 성숙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용기를 내어 위기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합의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고, 새로운 균형을 발견하고, 함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늘 열려 있는 이러한 자세로 이들은 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맞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화해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오늘날 우리는 “혼인 관계가 깨진 이들을 돌보는 사목이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 다음에 계속 -



무술년 새해를 맞으며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매일 뜨는 해이건만 새해 첫날 맞이하는 아침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렌다. 묵은 것들을 털어버리고 저마다의 소망을 담고 새로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출을 보러 산이나 바다로 향한다.

몇 해 전이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일출암으로 향했다. 그곳은 동해안 정동진보다 해가 빨리 뜨는 곳이라고 했다. 평소 기도생활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각오도 다질 겸 가족들의 소망을 기원하러 갔다. 일찍 서둘렀지만 큰 길 입구까지 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노변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갔다. 낮은 기온과 찬바람으로 언 손과 귀를 녹여가며 부지런히 걸어가는 행렬에선 신령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결연함이 엿보였다.

중턱쯤 올라갔을 때 뒤쪽에서 차가 한 대 올라왔다.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통과했을까? 무슨 큰 권력이나 어떤 특권이 있어 저렇게 편하게 일출을 보러가는 것일까? 여러 생각이 겹쳤다. 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어 코앞의 매연과 먼지를 쫓으며 열심히 걸었다. 한 해 소망을 빌러 가는 시간에 굳이 나쁜 마음을 가지려하지 않았다.

달리던 차가 가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차가 고장 났나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누군가 차길을 방해했다. 대부분 길가로 몸을 피해주었는데 젊은 남자 두 명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도로 중앙을 지그재그로 걷고 있었다. 아마 모두 다 걷는데 당신들은 뭔데 차를 타느냐는 불합리에 대한 반발심 때문인 듯 했다. 차는 보행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앞으로 진행했다. 젊은 사람 둘이 의도적으로 길을 막았지만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조용히 뒤따랐다.

등산로 입구에서 통과시킨 걸로 보아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암자에 물건을 수송하는 차량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제야 새해 첫날인데 계속 차길을 막는 젊은 남자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거의 목적지에 다다라서야 차길이 열렸다.

산등성이 너머로 장엄한 붉은 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경이로움에 탄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두 손을 모으고 소망을 기도했다. 그때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 길을 막던 젊은이들이 내 앞에서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다. 길을 터주지 않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광경이었다. 차량 한 대도 비켜주지 못하는 속 좁은 그들이 무슨 소원을 빈 것일까.

문득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시로 두 손을 모으면서 나와 뜻이 다르면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았다. 하느님을 구하기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 근거 없는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나도 그들을 닮지 않았을까.

다시 새해를 맞았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라는 말씀에 따르지 못했다. 내 탓이라는 생각보다 누군가를 탓한 적도 많았다. 올해 소망을 빌기보단 묵은 것들을 내다버리는 일을 먼저 해야겠다. 시기와 질투심, 쓸데없는 욕심과 교만, 불신과 미움 등을 버리는 일이 새로운 소원보다 더 소중한 일인 것 같다.

채우려고 했던 마음을 덜어내니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